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3 Spring Vol.32



In Schaeffler

06

미래의 가치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추진력, Change

16

체험 1박 2일
업무의 스트레스를
제주 봄바람에 날려 보내며



For Life

32

힐링 가족 캠핑
봄날의 여유가 소중해지는
그 날, 캠핑을 떠나다

38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가족을 향한
아빠의 기타소리



To Communicate

46

따뜻한 시선
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품앗이를 사랑 나눔 현장

56

세플러, 나의 인생을 걸다
내 생각의 작은 변화가
주변을 조금씩 밝힙니다

발행일 2013년 4월 15일(통권 제32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범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드 그래픽
인쇄 은성프린팅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4

Cover Story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In
Schaeffler

06

미래의 가치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추진력, Change

08

세플러를 찾아서

철강 산업의
중심부를 움직이는
세플러를 만나다

For
Life

32

힐링 가족 캠핑

봄날의 여유가
소중해지는 그 날,
캠핑을 떠나다



36

꽃중년 프로젝트

중년의 변신을 위한
헤어스타일링



12

원더풀 베어링

자동차의 높은 연비와
주행성능 속 숨은
세플러의 기술

14

나의 S 다이어리

파이팅 넘치는
세플러의 힘찬 기합소리



38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가족을 향한
아빠의 기타소리



40

남편의 자격

고부갈등 해소를 위한
남편의 자세

42

생생정보

2013년 달라지는 제도



16

체험 1박 2일

업무의 스트레스를
제주 봄바람에
날려 보내며



20

세플러 애정촌

말기처럼 새콤 달콤한
러브스토리

TO
Communicate

46

따뜻한 시선

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풀잎마을 사랑 나눔 현장



48

새로운 시선

뜨거운 열정과
젊은 패기로
세플러의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다

24

세플러인 탐구생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

26

고민 상담소

딱딱 짚어주고
쑥쑥 이해되는
기획서 용어

28

Happy Birthday

2, 3, 4월 생일자
생일 축하 이벤트



50

Schaeffler Focus

56

세플러, 나의 인생을 걸다

내 생각의 작은 변화가
주변을 조금씩 밝힙니다

58

Schaeffler Hotline

59

나도 기자다

〈세플러+원〉
신입 사보 주재기자를
소개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존 업다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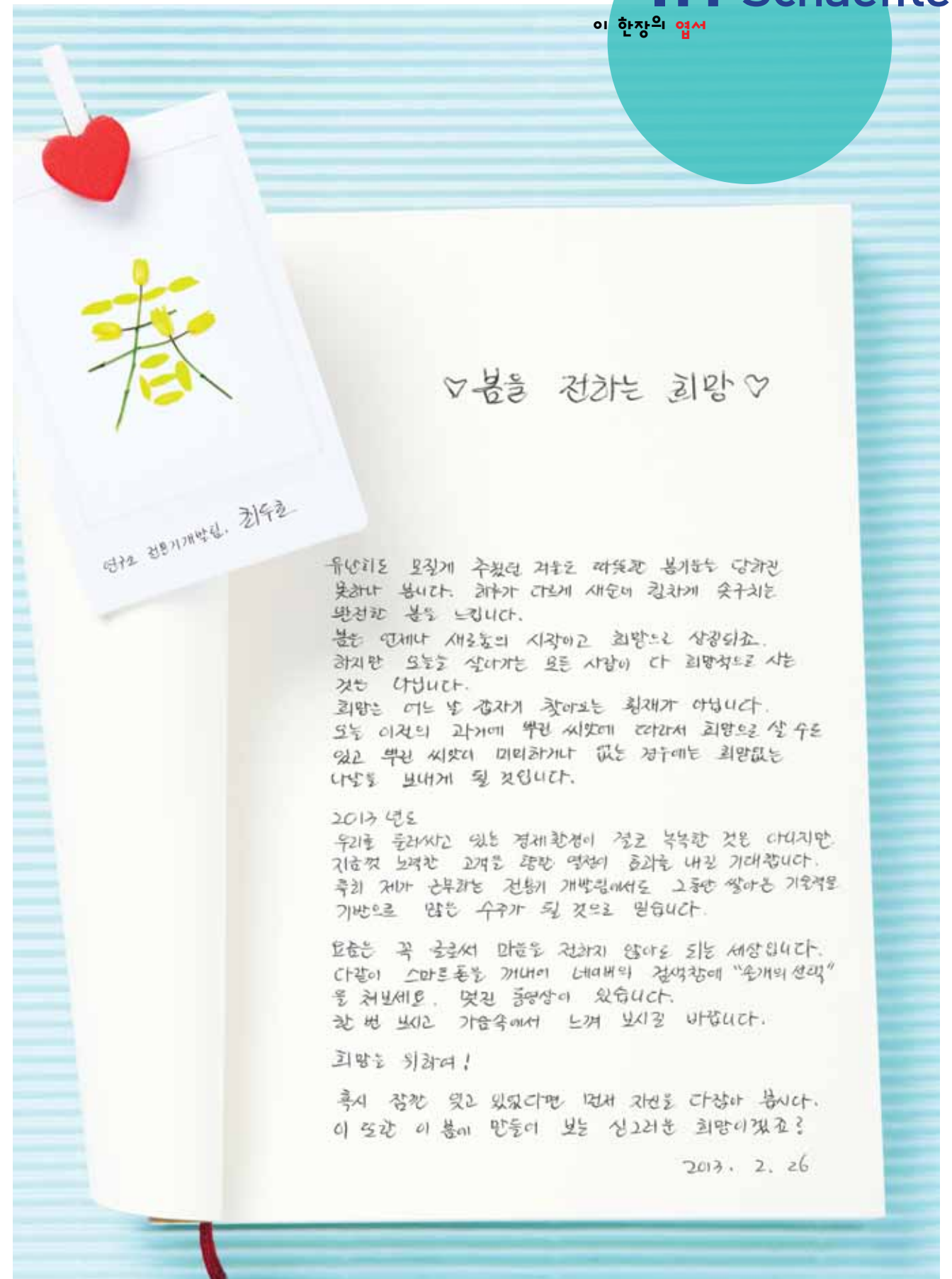
— 품질경영사업부 서현식 상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그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열정과 몰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능력 차는 아무리 커도 5배를 넘지 않지만 의식의 차이는 100배의 격차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세요. 자신의 인식은 종종 자신의 신념보다 더 정확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며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한 후 열정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니 자신을 믿으세요.



♡ 봄을 전하는 희망 ♡

연가호 전통기개발팀, 최두호

유난히도 모질게 추웠던 겨울은 따뜻한 봄기운을 당겨온 듯하나 봄이다. 해가 다르게 새내기 걸차게 솟구치는 완전한 봄을 느낍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으로 상징되죠. 하지만 모토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희망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횡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전의 과거에 뿌린 씨앗에 따라서 희망으로 살 수 있었고 뿌린 씨앗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희망없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결코 낙관할 것은 아니지만 기쁜듯 노력한 고개를 향한 열정이 결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특히 저가 근무하는 전통기 개발팀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으로 많은 수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효율은 꼭 늘려서 마를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다같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네배의 검색창에 "윤개의 선택"을 쳐보세요. 멋진 동영상도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가슴속에서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위하여!

혹시 잠깐 잊고 있었다면 먼저 자신을 다잡아 보세요. 이 또한 이 봄이 만들어 보는 신그로운 희망이겠죠?

2013. 2. 26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추진력

Change



과감한 변화는 혁신을 낳는다

1990년대 남이섬은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는 곳, 중년 남녀가 한데 어울려 막춤을 추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그 섬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월 강우현 사장이 대표를 맡고나서부터다. 좋지 않은 이미지와 더불어 연매출 20억 원에 은행 빚 60억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폐쇄될 위기에 처했던 남이섬은 5년 만에 관광객 수가 167만 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났고 매출도 100억 원으로 5배 커졌다.

단순히 매출규모만 달라진 게 아니다.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던 남이섬의 흥청망청 이미지는 감성과 자연이 되살아난 생태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 갤러리, 도자기 공방이 들어오고 각종 전시회와 공연 이벤트가 열렸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고 남이섬의 천지개벽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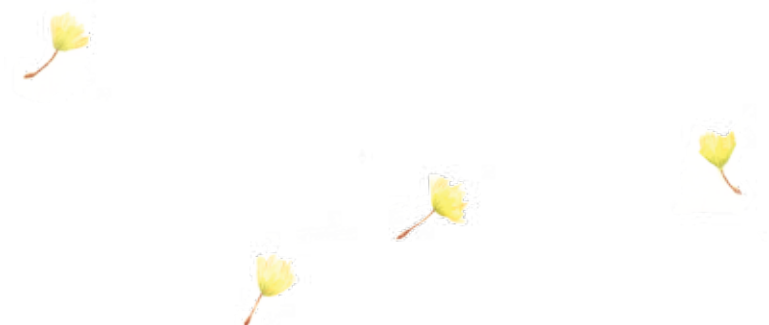
그저 교수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강우현 사장은 변화를 추구했고 ‘유원지를 관광지로, 소음을 리듬으로, 경치를 운치로 바꾸자’는 모토를 내세우며 자신의 성장은 물론이고 남이섬이라는 문화공간을 탄생시켰다. 이제 남이섬은 ‘나미나라’라고 불리고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지(?)로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되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다.

하를 찌르는 발상의 전환이 변화를 만든다

남이섬과 비슷한 사례는 일본에도 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네덜란드 마을로 알고 있는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있는 하우스텐보스가 그것이다. 숲속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하우스텐보스는 17세기 네덜란드 거리를 재현한 공간으로 1992년 무려 2,289억 엔을 들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하우스텐보스는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90년대 후반 별장식 주택 분양사업이 버블붕괴와 맞물려 실패로 돌아서면서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파산을 선고받은 것. 2004년에 노무라 증권이 지원으로 리뉴얼해 재개장되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쇼크로 인해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결국 노무라도 손을 떼게 되었다.

그러나 18년 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던 하우스텐보스는 2010년 일본 저가 항공사의 성공신화를 썼던 사와다 사장이 인수하면서 변화의 기점을 맞게 되었다. 채무 60억 엔에 연간 입장객이 겨우 140만 명(이것은 동경디즈니랜드의 5%에 불과한 수치다)에 불과하던 이곳은 2012년 입장객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매출 160억 엔 경상이익 32억 엔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사와다 사장은 먼저 하우스텐보스의 방문객 자체를 늘리기 위해 무료개방이라는 역발상을 냈다. 또 고객은 입장료 인하는 같은 조치에 별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와다 사장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한 명소화 전략을 발현했다. 봄에는 장미축제를 열고, 여름에는 호러영화축제를, 가을에는 가드닝 월드컵을 열었다. 특히 겨울에 열리는 일루미네이션 축제는 텅 비게 마련이었던 겨울철에도 수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해주었다.



결국 멈춰 서 있는 것은 시대의 강물 흐름 위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변화에 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비로소 하루하루의 자그마한 변화들이 모여 장차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흔히들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해나가는 것은 다른 얘기다.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 정체되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아이폰은 경쟁자로 나섰던 삼성의 갤럭시폰에 승승장구했었다. 실제로 성능이나 기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삼성은 한참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회사가 혁신보다는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아이폰은 결국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갤럭시에 추월당했다.

물론 그렇다고 변화가 한꺼번에 무리하게 모든 걸 뜯어고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변화에 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비로소 하루하루의 자그마한 변화들이 모여 장차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는 그 자체로 위기를 동반하지만 그 위기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세플러코리아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우들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실제로 어떤 분야, 어떤 기계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 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플러의 제품이 직접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세플러의 신입사원이 눈과 귀가 되어 찾아가 보고자 한다.



세아제강 군산공장의 세플러를 찾아서 철강 산업의 중심부를 움직이는 세플러를 만나다

안산공장 생산팀 김승민 사원



(왼쪽부터) 세아제강 한지훈 과장,
우리회사 서부지점 이찬섭 부장, 안산공장 김승민 사원

내가 만드는 제품은 과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세플러코리아의 주요 제품인 베어링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계부품이다. 회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계에 거의 빠짐없이 적용되는 베어링은 고압, 고열 등의 악조건 속에서 그 품질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플러의 제품만을 고집한다는 세계적인 철강업체 세아제강 그 중에서도 군산공장에서 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세플러의 제품을 만났다. 이번 세아제강 군산공장을 직접 찾아갈 사우는 안산공장 생산팀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김승민 사원이다. 이와 함께 세아제강 군산공장과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점 이찬섭 부장이 동행했다.

세아제강의 선택은 역시 세플러

세아제강 판재사업본부 군산공장 생산1팀의 한지훈 과장의 자세한 안내에 따라 군산공장을 둘러보았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세아제강 군산공장은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강판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곳이다. 군산공장은 우선 공장의 규모에서부터 분위기를 압도했는데 워낙 부피가 크고 육중한 생산품을 만들어 내다보니 그 제품을 만드는 환경 또한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실사와 흡사한 다양한 컬러와 문양의 '컬러강판'은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의 제품이다.

강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에 적용되는 베어링
또한 고열과 고압
그리고 제품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야만 한다.



이 제품의 생산과정을 간단하게 말하면 원료가 되는 철강제품을 강판 형태로 만들기 위해 고온, 고압의 과정을 통해 얇게 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생산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가공을 하고 도색 및 인쇄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회전체를 이용한 가공은 필수적인데 이 생산 과정에 꼭 필요한 부품이 바로 세플러의 베어링이다. 이곳에서는 롤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계 속의 베어링 또한 고 열과 고압 그리고 제품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야만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생산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는 베어링 제품으로 타 업체의 제품이 아닌 세플러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베어링 제품이 1~2년 사용하면 교체해야 하는 반면에 세플러의 베어링은 워낙 내구성이 좋아 2~3년 이상 교체기간이 길어진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한다. 대형 기계에 적용되는 베어링의 납품가격이 대략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고 하니 경비 절감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세플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Interview +one

안산공장 생산팀 **김승민** 사원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늘 제품을 만들면서 이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아제강 군산공장을 돌아보며 공장의 크기와 규모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크고 무

거운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우리 세플러가 만든 제품이 적용되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한 번 놀랐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세플러의 이름을 걸고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제품을 생산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뜻밖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이번을 계기로 나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아제강 한지훈 과장으로부터 압연기 환경과 베어링의 수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승민 씨. 강판생산에 필요한 압연기는 베어링 운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피해야 할 조건인 고온·고압·지저분한 환경 3박자를 모두 갖춘 최악의 환경이다.



승민 씨는 세플러의 인재답게 이런 과정을 살펴보고 열심히 메모도 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꼼꼼히 현장을 살펴보았다.



직접 눈으로 귀로 확인한 자랑스런 세플러의 기술

이번 방문의 주인공인 승민 씨는 세플러의 인재답게 이런 과정을 살펴보고 열심히 메모도 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꼼꼼히 현장을 살펴보았다. 특히 세플러 제품이 어떤 공정의 기계에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승민 씨의 눈은 더욱 빛났다.

군산공장에 적용되는 세플러의 제품은 생산라인 속에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성인 키만한 크기의 대형 베어링에서부터 보다 작은 크기의 베어링이 모두 세플러의 제품이라고 하니 더욱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세아제강 군산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보는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승민 씨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다. 별다른 생각없이 습관처럼 그저 내가 맡은 생산 부분만을 생각하고 생산의 현장에 있던 예전과는 분명 달라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변한 듯하다.

SeAH 세아제강

세아제강은 1960년 부산철강공업주식회사로 시작하여 지난 50여 년간 철강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철강업의 씨앗을 뿌렸으며, 국내 최초로 미국에 강관을 수출하는 등 철강 산업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국내 유수의 기업이다. 1996년 세아그룹으로 재편하며 더욱 성장하게 된 세아제강의 주력 제품은 강관과 강판(철로 만든 판재)이다. 강관은 배관이나 상수도용으로, 강판은 건축자재와 가전제품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강관은 포항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생산하며 강판은 군산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www.seahste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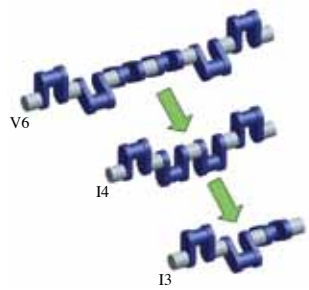


자동차의 높은 연비와 주행성능 속 숨은 세플러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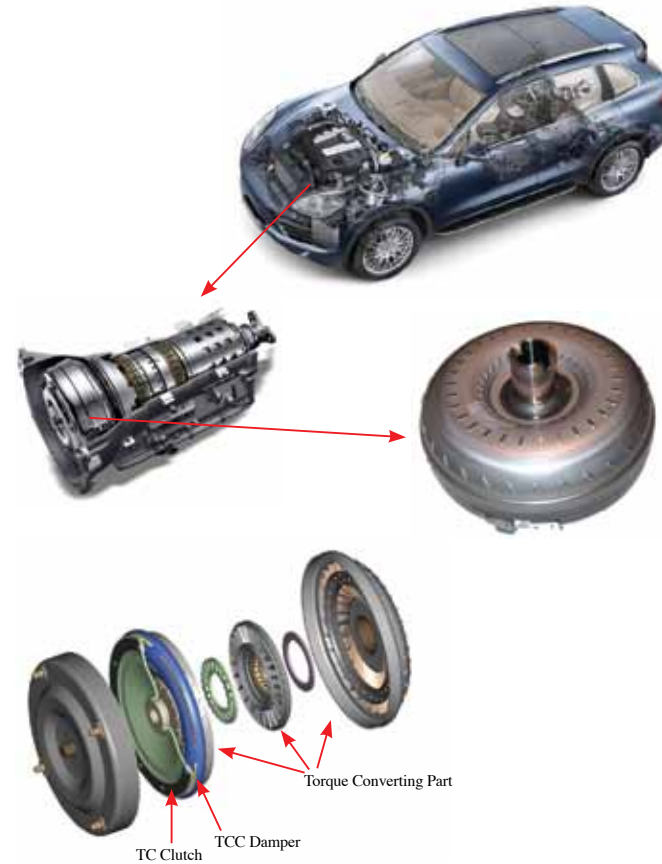
현재 자동차 업계의 주요 화두는 높은 차량 주행성능과 경제적인 연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즉 높은 주행성과 쾌적한 정숙성 그리고 경제적인 운행을 위한 연비 증대를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파워트레인 분야에서는 높은 연비와 우수한 주행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세플러의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한다.

주행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동력전달장치, 토크컨버터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상당부분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이며, 이러한 자동변속기 시스템에는 엔진에서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해주는 '토크컨버터'라고 부르는 유체 클러치 장치가 적용된다. 토크컨버터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토크컨버팅 부분과 동력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엔진 출력을 직접 변속기로 전달하기 위한 토크컨버터 클러치(TCC), 그리고 클러치 작동 시 엔진으로부터 전달되는 비틀림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 감쇄하는 클러치 댐퍼 이렇게 크게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클러치 댐퍼는 효과적인 비틀림 진동차단을 위하여 엔진의 성능과 차량의 주행특성에 맞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Engine downsizing



자동차 엔진에 장착된 토크컨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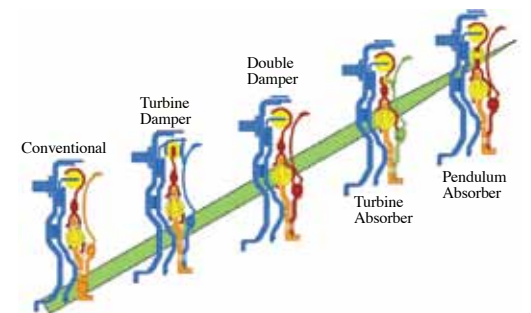
CPA(Centrifugal Pendulum Absorber) 댐퍼의 놀라운 기술

진자의 운동특성은 역학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거동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성분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진동성분을 상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동성분은 진자가 상쇄한 에너지만큼 감소하게 되어 변속기측으로는 공학적으로 허용할만한 크기로 감소된 진동성분을 전달하게 되어 효과적인 댐핑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낮은 변속단 주행 혹은 저속 언덕길 주행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기존에는 높은 진동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던 낮은 엔진 속도 조건에서 클러치를 작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력 효율을 기존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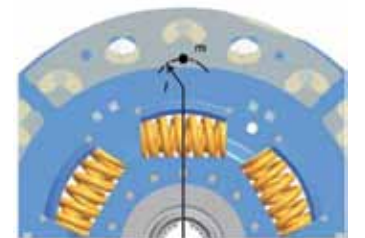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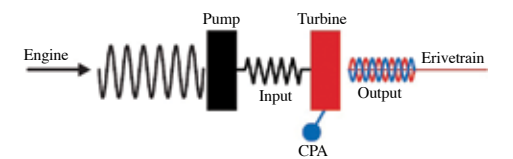
현재 독일과 일본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CPA 기술을 적극 적용하였거나 혹은 도입 예정이며,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도 CPA 기술적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해외 자동차업체의 기술동향과 세계적인 기술개발 트렌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대부분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엔진사양과 함께 발전하는 댐퍼(Damper) 기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1단 댐퍼나 연속댐퍼, 혹은 6기통이나 8기통 같은 큰 배기량의 엔진에는 더블댐퍼나 터빈댐퍼 등을 적용하여 높은 출력의 엔진 비틀림 진동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비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큰 배기량을 저 배기량 엔진으로 축소하면서 엔진 출력증대를 위한 터보차저와 같은 파워 증대 장치를 적용함에 따라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 진동의 크기는 과거사양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이 증가하게 된다. 차량 구동계 소음·진동·충격(Noise·Vibration·Harshness)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높은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댐퍼 기술로는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자의 운동 원리를 이용한 CPA(Centrifugal Pendulum Absorber)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CPA 기술이 적용된 댐퍼



CPA의 원리

파이팅 넘치는 세플러의 힘찬 기합소리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전갑주 사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던가. 아마 연구소의 전갑주 사원을 보고 하는 말인가보다. 현재 연구소의 전용기개발팀에서 베어링 연삭기의 제작과 개발, 그리고 노후된 설비를 보수하는 일을 맡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술선수범하기에 세플러원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드린다며 씩스러운 듯 웃어보이는 갑주 씨. 열정을 빼면 섭섭한 그의 보람찬 하루를 따라가보자.

오늘하루도
알차게 정신집중!!



AM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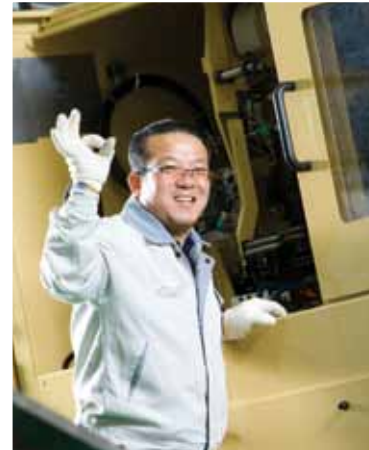
갑주 씨의 출근은 항상 이렇다. 보통 이른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운동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올해로 아침운동은 10년, 명상은 20년 정도 됐는데, 꼼꼼함과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을 한데 모으는 운동과 명상은 많은 도움이 된다. “운동과 명상을 통해 체력도 기르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해피비너스 팩팩,
회의도 유쾌하게



AM 8:15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전날 업무의 인수인계와 회의가 진행된다. 입사 때부터 함께 일해오며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힘찬 구호를 외치며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데, 갑주 씨는 항상 밝은 표정과 성격덕에 분위기메이커로 통한다고.



AM 9:00

공장을 한바퀴 둘러보며 기계에 이상은 없는지, 안전에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갑주 씨. 체구는 작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프로의 분위기를 풍긴다. 몇 년전 일이 줄어서 1공장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도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내 부서처럼 열심히 일한 갑주 씨. 역시 프로다.

배움에 끝이 없다는 욕심짐이



PM 3:00

갑주 씨의 주된 업무는 최근 새로 개발하고 있는 기계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그런데 갑주 씨는 입사 18년차 임에도 여전히 욕심많은 신입사원 같다. “아직도 모르는 설비가 많아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보고 싶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갑주 씨가 이렇듯 부지런히 공장을 뛰어다니는 이유는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료와, 항상 말없이 곁에서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플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갑주 씨.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플러원 가족들에게도 힘찬 응원을 보낸다.



1. 운동과 명상으로 일과를 시작

2.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한다

3. 업무중 집중! 철저한 관리

역시 세플러!
이상무!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자전거 하이킹 체험

업무의 스트레스를 제주 봄바람에 날려 보내며

제주 is 휴양의 섬이다. 요즘 유행하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나 할까? 그동안 다른 사우들의 고민을 해결하느라 업무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창원공장 업무지원팀이 가장 먼저 봄바람이 불어오는 제주도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꽃피는 제주에 혼자음서에 ~

바다 하나 건넌을 뿐인데 제주의 풍광은 육지의 그것과는 공기부터 다른 느낌이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힌 제주인만큼 그 자연경관을 둘러보고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많았다. 그중에서 유난히 활기차 보이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창원공장 업무지원팀이다.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늘 다함께 모일 시간이 부족했던 팀원들이다보니 이렇게 회사 밖에서 따로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봄기운 ‘딱딱’ 받고, 그간의 업무 스트레스 툭툭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생각에 다들 설레는 모양이다.



바람 많은 제주의 바람 속을 달리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자전거 하이킹이다. 하이킹의 코스는 제주 관광 1번지인 용두암에서 시작해서 해안 자전거 도로를 통해 이호 해수욕장에 이르는 코스로 정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 위험하지는 않지만 총 왕복 14km에 달하는 거리로 결코 만만치 않은 코스였다. 우선 제주 시내에서 인원수대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각자 자전거를 점검 한 후 옷깃을 여미고 하이킹의 준비를 끝마쳤다. 우선 자전거에 익숙한 순서대로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을 나누고 출발하기로 했다. 자전거 대여점에서부터 첫 번째 목표 지점인 용두암까지는 차량운행으로 인해 위험이 있어 천천히 이동하기로 했다. 다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서인지 서툰 모습도 있었지만 세플러인답게 이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내 길을 조심스레 빠져나오자 관광 도시답게 잘 정돈된 자전거 길이 나타났다. 어느덧 첫 번째 기착지인 용두암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섬 특유의 변화무쌍한 날씨답게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업무지원팀에게 시작부터 장애물이란 없는 법. 탁 트인 바다를 옆에 끼고 다시 자전거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나자 날씨는 조금 더 꺾어지고 일정상 점심을 거른터라 더욱 힘든 표정이 역력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한 이호철 팀장의 결정에 따라 식사 겸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먹고 합시다.”



돌 많은 제주에서 돌처럼 단단한 팀워크를 다지다

제주의 맛집을 찾을 거를도 없이 가까운 식당에서 해물탕,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등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한 후 다시 달릴 준비를 했다. 뱃속이 든든해진 탓인지 아니면 날씨가 살짝 다시 좋아져서인지 식사 전과는 사뭇 표정들이 달라져 있었고, 모두들 이대로 한 번에 목적지까지 달릴 기세였다. 다시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는 길에는 드문드문 유채꽃이 피어 있었고 제주 특유의 현무암 돌담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 즈음을 더 달린 끝에 이번 하이킹의 목적지이자 반환점인 이호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다들 눈으로만 보며 달리던 해변으로 직행했다. 아직 봄바다라 차가울 터였지만 살짝 손끝으로 파도를 만져보기도 하고 바다를 향해 크게 고함을 질러보기도 하며 바다를 즐겼다. 이렇게 바다에 모였으니 다 같이 기념 촬영하는 것도 빠질 수 없을 터. 처음에는 다들 증명사진을 찍는 듯한 포즈로 어색해 하더니 이내 활기찬 본모습을 드러내며 갖가지 파이팅 넘치는 포즈를 취해본다. 그리고는 다 같이 손을 모아 업무지원팀 파이팅을 외친다. 사뭇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 제주에서까지 남들 눈을 신경 쓸 필요 따위는 없었다. 비록 짧은 시간의 휴식이었지만 다들 에너지가 재충전된 듯한 모습이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우리팀만의 여행

자전거 하이킹을 무사히 마친 후 숙박과 휴식을 위해 펜션으로 이동했을 때는 저녁식사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을 이용해 저녁 먹거리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숙소로 향했다. 저녁 메뉴는 제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제주 흑돼지 오겹살 숯불구이. 피곤하고 번거로운 법도한데 저녁 상차림 준비가 일사천리다.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과연 세플러코리아 최강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업무지원팀답다.

그간 업무지원팀은 회사 내 굿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왔다. 사내 규정대로 불펜 한자루 지급하는 것까지 업무 처리가 정확해야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에게 불멘소리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손발이 척척 맞는 팀워크로 많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있다.

우리 팀만의 특별한 체험, <세플러+원>이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팀은 사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독자엽서에 체험 레포츠(여행지)와 사유를 적어 보내주세요.

Interview +one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이호철** 팀장



제주도에는 20여 년 전 신혼여행으로 처음 왔었는데 오늘날과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는 해변가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저희 팀원들과 다함께 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업무지원팀의 특성상 노무, 총무 등 생산 업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일이다 보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또 회식을 한다고 해도 특정 업무로 인해 빠지는 사람들이 있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팀장으로서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늦은 저녁 식사와 술자리가 화기애애를 넘어 화끈하게 이어졌다. 이 역시 경상도 사나이들이 모인 업무지원팀답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다들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인다. 역시 '힐링'의 정답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 있나보다.



딸기처럼 새콤 달콤한 러브스토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사람들이 콧노래를 살짝 섞는 걸 보니 벌써 봄이 이만치 다가왔나 보다. 새싹들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꽃봉오리도 고개를 쏙 내미는 계절, 충남 논산의 딸기농장에서는 이미 봄맛이가 한창이다. 빨갭게 익은 딸기만큼이나 달콤한 사랑 마음이 물씬 나는 그곳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온 은미 씨와 우진 씨, 그리고 전주공장에서 온 민재 씨와 전주물류센터의 선아 씨가 만났다. 아직은 서로 어색하지만 왠지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것 같다며 다들 들뜬 눈치다.



비닐하우스에서 바로 따먹는 딸기의 맛

농장주를 따라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자마자 봄 내음과 함께 향긋한 딸기향이 은은하다. 이곳에서는 약간의 체험비를 내면 딸기 따기 체험은 물론, 딸기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 딸기 따기에 앞서 은미 씨와 민재 씨, 선아 씨와 우진 씨가 각각 짝을 이뤘다. 어느 커플이 더 탐스럽고 맛있는 딸기를 따는지 대결이라도 하듯 견제의 눈빛이 오간다.

농장주의 딸기 따는 시범을 숙지하고 딸기 따기 체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런데 따는 딸기는 바로 입으로 직행하기 바쁘다. 이곳 딸기농원에서는 천적곤충을 풀어 해충을 잡는 친환경 경농법과 무농약으로 딸기를 재배하므로 꼭지만 떼어내고 바로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다. 게다가 달콤한 향이 풍부하고 당도 또한 높으니 딸기 따기는 뒷전이고, 일단 먹기 바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딸기를 실컷 먹은 후, 딸기 모종 심기 체험을 했다. 보통 딸기는 가을에 모종을 심어 이듬해 봄기운이 도는 4월, 하얀색의 꽃이 지면서 작은 딸기가 자라나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면 좀 더 이른 시기에 맛볼 수 있다. 비록 모종을 심는 시기는 아니지만 직접 흙을 고르고 모종을 심는 경험은 다들 처음이라 정성껏 딸기 모종에 흙을 덮어 주었다.

딸기처럼 상큼한 첫 번째 커플

서울사무소 글로벌 CS팀에서 근무하는 상큼발랄 은미 씨는 각 거래처의 수출업무를 조율하고 진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선적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긴다. 은미 씨는 바쁜 와중에 학업에도 열심인데 낮에는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유통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다고. 지금하고 있는 업무와도 관련이 깊어 학업에 소홀할 수 없다는 은미 씨다.



1 couple.

고민재 사원
전주공장
품질보증팀

천은미 사원
서울사무소
글로벌CS팀



은미 씨는 예쁜 딸기를 골라 민재 씨에게 딸기만큼이나 상큼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세플러 가족들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해서 딸기도 먹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만큼이나 부지런한 민재 씨는 전주공장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내 계측기의 검·교정 관리는 물론 단조품/열처리품에 대한 경도 조적관리와 유제품질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배울게 태산이라는 민재 씨는 평소 낙실 좋은 성격으로 팀장님과 종종 탁구를 치며 막내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내 손으로 만드는 딸기잼

딸기도 심었고 수확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딸기잼을 만들어 봐야 할 시간. 방금 만든 따끈한 딸기잼을 맛볼 수 있다는 말에 커플들은 당장 소매를 걷는다. 먼저 딸기의 꼭지를 떼낸다. 선아 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꼭지를 따기 시작한다. 다소곳이 앉아 딸기를 손질하는 모습은 천상 여자다. 선아 씨 주변으로 어느새 동그랗게 마주보고 앉은 네 남녀는 언제 어색했는지 모를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딸기잼의 하이라이트. 꼭지를 따낸 딸기를 손으로 으개는 작업이다. 네 남녀가 딸기를 담은 대야에 두 손을 뽕뽕 담고고는 주물거리기 시작한다. 손가락 사이에서 으개지는 딸기의 감촉이 별로인지 민재 씨가 개구진 표정을 지어 보인다.



손으로 주물주물
내가 만든
달콤한 딸기잼

- Tip
딸기잼 만드는 법
1. 꼭지를 떼 딸기를 물에 한번 행군다
 2. 딸기를 손으로 으갠 후 중불에서 끓인다.
 3. 딸기가 팔팔 끓으면 설탕을 세번에 나누어 넣고 한쪽 방향으로 젓는다.
 4. 40분 정도 가열 후 되직해지면 병에 담는다.
 5. 금속뚜껑으로 닫고 거꾸로 얹어놓으면 진공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딸기처럼 달콤한 두 번째 커플

핑크색 가디건으로 여성미를 뽐내는 선아 씨는 전주물류센터에서 완제품의 입·출고와 부품 입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꼼꼼함을 필요로 하는 물류관리인이라 선아 씨와 딱이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선아 씨는 의외로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는 대장부라고. 아직은 국내 여행을 위주로 다녔지만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꿈도 조만간 이루기를 기대한다. 반전매력의 선아 씨와 커플이 된 우진 씨는 서울사무소 섹터운영팀 LM 섹터에서 각 지점이나 업체에서 문의한 LM 견적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개발 관련 건이나 납기 관련 건에 대해 독일과 협의하여 피드백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훈훈한 미소와 함께 고객의 제품에 이상은 없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새로운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우진 씨다. 요즘엔 골프를 취미로 시작했다하니, 열심히 배워 올 봄에는 필드에 한번 나가보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LM 분야와 베어링에 대한 공부는 물론, 건강한 몸과 정신도 욕심내본다.

"출근할 때 소풍가는 것처럼 무척 두근거렸어요. 통통하고 윤기가 흐르는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세플러코리아의 두 커플은 봄을 입안에 듬뿍 담고 코로 한껏 들이 마시며 세플러코리아 가족들 또한 따뜻한 봄기운 가득 담아 달달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

선아 씨와 우진 씨가 든 딸기 바구니에서 달콤한 향이 가득 올라온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자마자 딸기향이 마구 퍼지는게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딸기와 처음 맛본 딸기고추장 비빔밥 강력 추천합니다!"



2 couple.

정우진 사원
서울사무소
섹터운영팀

김선아 사원
전주물류센터



세플러인들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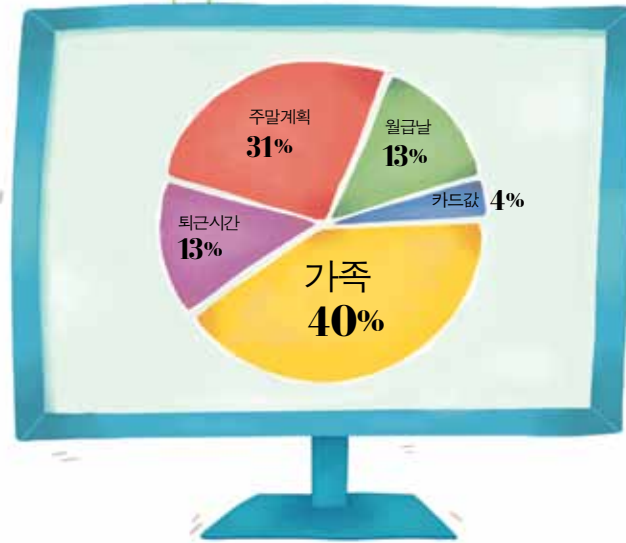
‘대학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

오늘 상사에게 혼나 울적한가?
통장에 월급이 금세 사라져 허탈한가?
벌써부터 공감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을 짊어진 직장인이다.
때론 생각처럼 되지 않고
때론 실수도 하지만
서로를 챙기고 이해하는
세플러인들이 있기에
세플러의 내일이 멋진 것 아닐까.
세플러인이 답하고
세플러인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설문대상 : 세플러코리아 전직원
설문기간 : 2013년 3월 18일~27일
총 응답자수 : 1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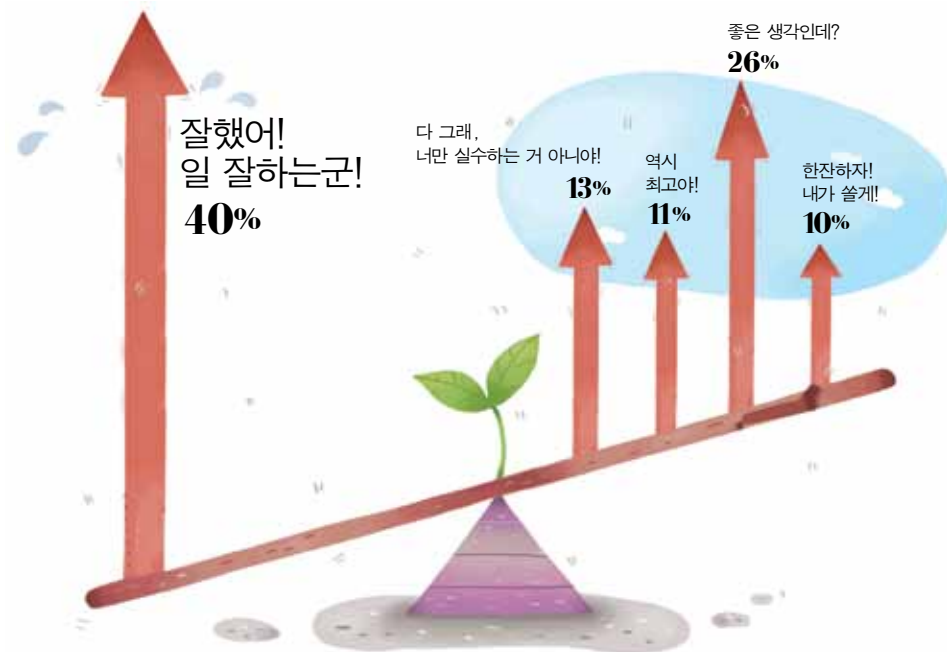
Q1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Q2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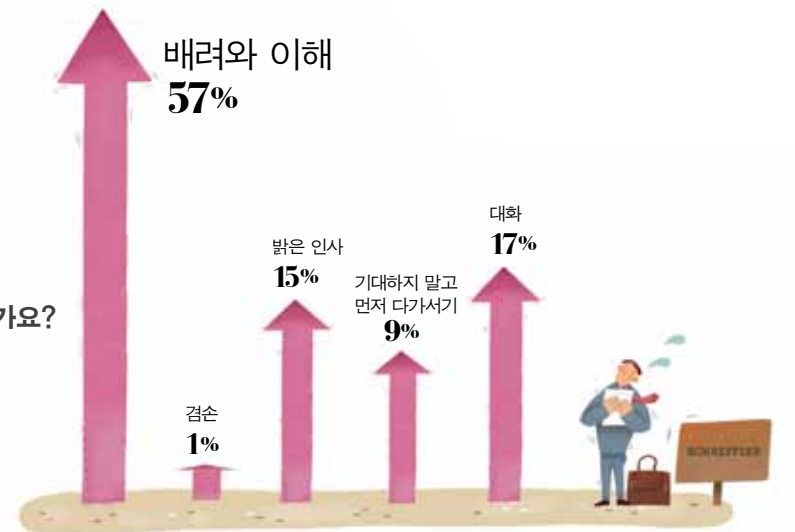


Q3

사내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Q4

사내 인간관계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46%



Q5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공감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딱딱 짚어주고 쑥쑥 이해되는 기획서 용어

직장인이
자주
틀리는
기획서 용어
완전정복!

결재(決裁) VS 결제(決濟)

결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 부장님께 결재 받는 대로 실행합니다.

결제

유가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것을 말한다.

예) 거래처의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참고(參考) VS 참조(參照)

참고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는다는 뜻. 즉 내가 어떤 것을 조사할 때 자료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려고 하니 그 책을 빌려주세요.

참조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보는 뜻. 상대방에게 비교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 자세한 것은 별첨 서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개발(開發) VS 계발(啓發)

개발

토지나 삼림, 천연자원 등을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들거나 산업, 경제를 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하게 하는 뜻도 갖고 있다.

예) 유전개발, 산업개발, 신약개발 등과 같은 경우

계발

슬기와 재능 같은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말한다.

예) 상상력과 창의력 계발, 외국어 능력의 계발, 아이들의 재능 계발 등의 경우

혼동(混同) VS 혼돈(混沌)

혼동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며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한다는 뜻이다.

예) 불완전한 도로의 신호체계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동을 한다.

혼돈

마구 뒤섞여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

예) 우리 회사의 기업 정체성을 혼돈시켰다.

다르다 VS 틀리다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예) 우리 부서의 임장은 인사팀과 다르다.

틀리다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는 것을 뜻한다.

예) 도표에서 인용한 경영 수치는 틀리다.

지양(止揚) VS 지향(志向)

지양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예)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한다.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하거나 그 방향으로 쏠리는 의지를 뜻한다.

예) 우리 회사는 녹색 경영을 선포하고 지향한다.

상신(上申)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내용을 말이나 글로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에서는 안전이나 보고를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기안 올리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 본사에 대책회의 보고서를 상신했다.

품의(稟議)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쭙어 의논한다는 뜻으로 회사에서는 보통 업무상 경비, 경영 등의 관리 안전에 대해 관련 부서 결정권자에게 의견을 서면화하여 기안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예) 이번 행사 계획안을 팀장님께 품의 올리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나신입 사원. 그는 요즘 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생활을 하며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 팀장에게 기안 문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올려야 하는지 '결제'를 올려야 하는지 혼동될 때가 있다.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을 '결제'를 해야 하는지, '결재'를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자기 '계발'을 해야 하는지,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생소한 단어, 또는 직장인들이 자주 틀리거나 혼동하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헷갈리는 용어들을 한눈에 정리했다.

Happy Birthday To You

열심히 일한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하루

– 서울사무소 생일자를 위한 생일 선물



그동안 본인의 생일인데도 회사에서 아무도 챙겨 주지 않아 서운했다면, 간단하게 케이크와 간식으로 생일 파티를 대신 했다면, '이 나이에 무슨 생일을 챙기나?' 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세플러인에게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생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봄 소풍, 야외에서 하는 생일 파티는 처음이지?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세플러코리아의 봄 생일자들을 대표해 각각 하는 일과 직급, 나이가 다른 네 명의 사우가 모였다. 으레 회사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몇몇이 모여 회식을 한다거나 그도 아니면 간단한 다과 파티 정도로 끝내던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생일파티를 해주겠다며 공원으로 불러 모은 것에 다들 조금은 어안이 병병한 모양이다. 이들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모인 곳은 서울 대학로 인근의 낙산공원이다. 다행히 지난 며칠간 하늘을 뒤덮던 황사가 말끔히 개여 맑은 봄하늘 아래 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영락없이 봄소풍 분위기다. 처음에는 다들 공원을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했지만 돛자리 위에서 샌드위치며 과일, 음료 등을 앞에 두고 앉으니 제법 소풍 온 느낌도 나고, 어색함도 덜해진 듯하다.

대화가 필요해, 우리는 세플러 가족이니까

사실 생일이 '봄'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딱히 공통점이 없는 네 사람. 회사에서 지나가나 몇 번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 정도의 친분이라 이렇게 긴 시간동안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할 만도 하다. 하지만 서로 서툰 인사말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서로의 업무 이야기며 회사에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친해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 생일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생일케이크가 준비되었다. 이번 자리의 홍일점인 인자 씨가 생일케이크를 받아들고 다 같이 모여 촛불을 끄며 서로의 생일을 축하했다. 햇살 밝은 야외 공원에서, 그것도 잔디밭 위에서의 생일 파티. 조금은 낯설지만 나름의 낭만이 있는 생일 파티로 각자의 마음 속에 특별한 생일 파티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참여자

- T/M & 사시시스템 영업1팀 이혁준 부장(3월 11일 생)
- 정보시스템팀 정찬웅 사원(2월 15일 생)
- 서울지점 이인자 사원(3월 9일 생)
- 재경팀 김욱중 사원(4월 29일 생)



(왼쪽부터) 김욱중 사원, 이혁준 부장, 정찬웅 사원, 이인자 사원



특별한 생일 선물, 문화의 향기를 선물 받다

생일 파티에 생일 선물이 빠질 수는 없을 터. 세폴러원에서 준비한 생일 선물은 바로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요즘 가장 핫한 연극인 〈기막힌 스캔들〉의 관람이다.

이번에 모인 네 사람 또한 바쁜 직장생활로 대학로에 오는 것이 실로 오랜 만이란다. 특히 이혁준 부장은 거의 십여 년 만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게 되었다며 잠시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대형극장에서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요즘에도 젊은 연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소극장 안으로 모여들었다. 그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네 명도 소극장 안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위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은 무대와의 거리,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는 조명 덕에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다. 곧이어 연극이 시작되고, 코믹 애정극이라는 광고 문구답게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숨 가쁘게 이어진다. 모두들 숨 죽이고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니 이번 생일 선물이 대만족인 듯하다.

연극이 끝나고 난 후, 텅빈 객석에서

연극이 끝나고 관객 모두가 서둘러 객석을 빠져나가는 시간, 네 사람의 세폴러인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가 이번 연극의 주인공들과 함께 모여 기념촬영도 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이들의 특별한 생일 파티. 처음 만남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서로 많이 친해진 네 사람은 어느덧 다음의 만남을 기약한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 봄이 오고 다음 생일을 맞이하면 분명 오늘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Interview +one

서울지점 **이인자** 사원



오늘의 생일 파티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야외 공원에서의 생일 파티로 그렇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는 것도 오랜만에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제 서른 두 번째 생일인데 흥기가 꼭 차다 못해 한참을 넘겨버린 이 못난 딸을 낳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일 맞이하신 모든 세폴러인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Tip

연극 〈기막힌스캔들〉

뉴보잉보잉 2탄!! 연극 기막힌 스캔들은 시종일관 감탄사를 불러내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코믹애정극으로 표정이 살아있는 배우들의 연기와 기막힌 대사에 감탄하게 되는 연극이다.

공연장소 : 서울 대학로 신연아트홀

관람시간 : 100분

관람등급 : 13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 30,000원(사전예매 시 각종 할인혜택 가능)

공연문의 : 약어컴퍼니 02.764.8760

(club.cyworld.com/super-scandal)



장성철 作 / 캔버스에 아크릴릭 / 2008

지중해의 마줄리카 섬처럼 온기가 느껴지는 풍요로운 오렌지색이 바탕에 깔려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풍부한 영양분을 전달하고 식욕을 돋운다. 건강하고 신선한 야채처럼 상쾌한 느낌을 전하는 그린색이 함께 어우러져 생생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상승시켜 준다. 검은색과 흰색의 원과 직선이 교차하는 도형들이 즐거움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한다. 움츠러든 마음에 온화한 봄기운을 전하는 그림이다.

색채마음연구소(www.multitherap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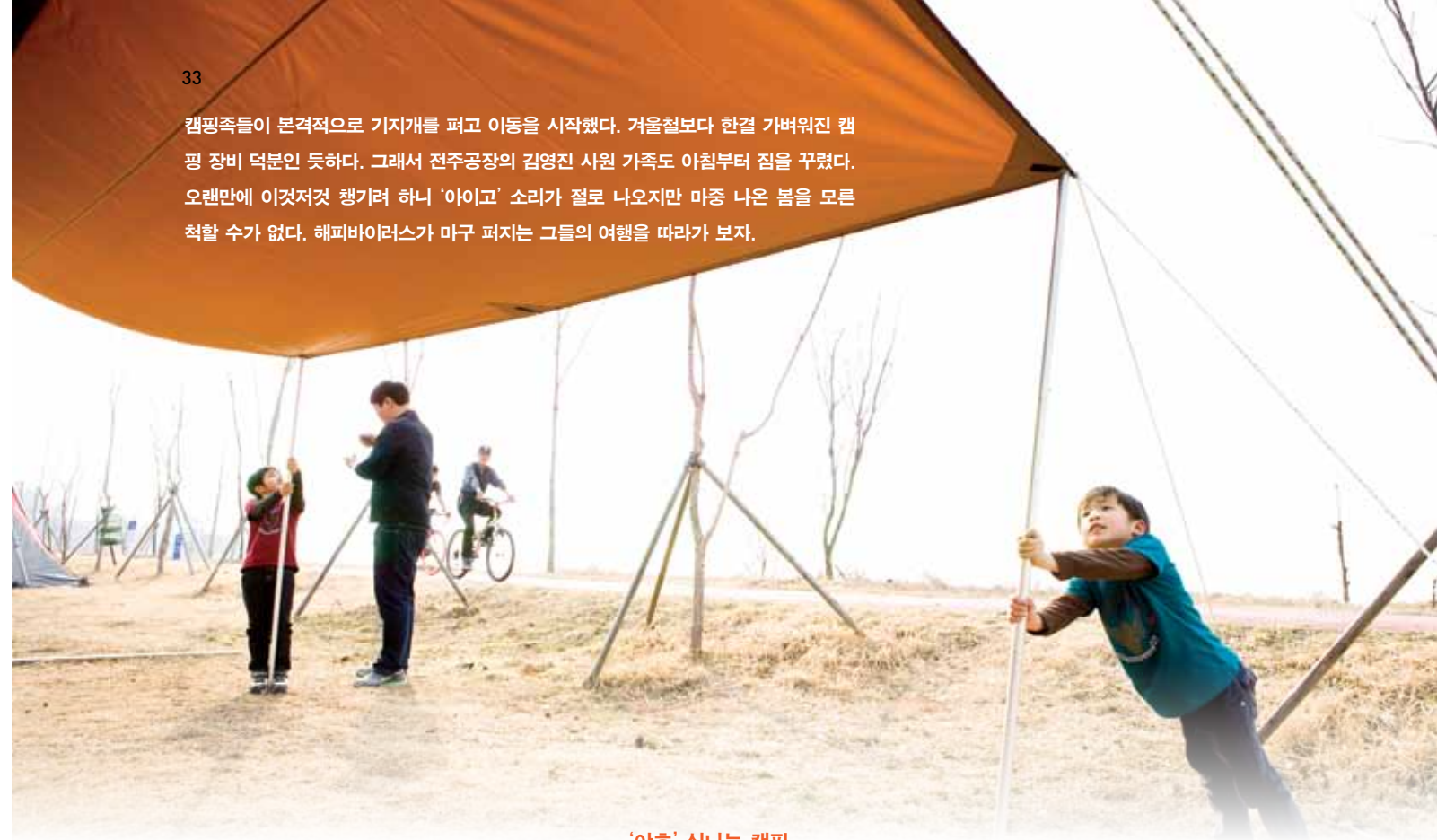
봄날의 여유가 소중해지는 그 날, 캠핑을 떠나다

전주공장 테이퍼/휠 베어링
생산2팀 **김영진** 사원 가족



(왼쪽부터) 김영진 사원, 큰아들 민건, 아내 김문옥 씨, 막내아들 윤건

캠핑족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이동을 시작했다. 겨울철보다 한결 가벼워진 캠핑 장비 덕분인 듯하다. 그래서 전주공장의 김영진 사원 가족도 아침부터 짐을 꾸렸다. 오랜만에 이것저것 챙기려 하니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마중 나온 봄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 해피바이러스가 마구 퍼지는 그들의 여행을 따라가 보자.



‘야호’ 신나는 캠핑,

우리 가족 출동~! 캠핑장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내아이가 짐을 척척 짊어진다. 한손에는 축구공, 한손에는 텐트를 들고 아빠를 졸졸 따라가는 큰아들 민건이와 막내아들 윤건이. 이제 9살, 7살이 된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추억이 생긴다는 생각에 오늘 캠핑이 더욱 설렌다. 아내 김문옥 씨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오랜만의 캠핑이라 아이들만큼 들뜬 듯하다.

석양이 물드는 곳,

웅포관광지 캠핑장 영진 씨 가족이 머물 베이스캠프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웅포관광지 캠핑장. 서해 낙조 5선의 하나인 웅포곰개나루 관광지에 조성한 캠핑장으로, 탁트인 강가와 뉘엿뉘엿 지는 석양이 아름다운 캠핑장이다. 또한 작년 6월에 개장해서인지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자전거 대여가 가능해 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길을 달려보는 것도 묘미이며,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도 적합하다.



망치질도 혼자서 척척하는 민건이.
“내가 머물 텐트는
내 손으로 짓는다. 야자!”

모두 힘을 합쳐 만든

아늑한 공간 영진 씨 가족의 캠핑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구성원의 역할 구분이 없는 것. 평소에는 집안일에 무심한 아빠여도 캠핑장에서 만큼은 모든 일에 앞장선다. 엄마와 두 아들도 쉴 수는 없다. 먼저 텐트를 설치할 바닥에 굵은 돌을 골라내는 것은 민건이와 윤건이의 몫이다. 그렇게 열심히 돌을 골라내고 나면 그 위에 팻을 박고 폴대를 세운다. 아빠, 엄마가 폴대와 플라이를 고정할 동안 단단히 잡고 있는 두 아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아늑한 텐트를 완성하기 어렵다.

성실맨

아빠를 닮은 아이들 전주공장 생산2팀에서 근무하는 영진 씨는 휠 베어링을 생산하는 WB조립조에서 6개 라인에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히 조치하는 세터업무를 맡고 있다. 평소 책임감 있는 모습과 성실함으로 어느덧 입사 19년 차가 되어 내년이면 근속 20년을 바라본다고 한다. 먼저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능동적인 두 아들이 영진 씨를 닮았나 보다. 큰아들 민건이는 책 읽는 것은 물론, 바이올린 연주와 운동에도 능해 못하는 게 없고, 윤건이 또한 그런 형을 닮아 똘똘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어쩔 때는 형보다도 의젓한 자세로 엄마, 아빠를 놀라게 한다고. 만능 재주꾼인 두 아들이 요즘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거기에 나오는 김병만처럼 '달인'이라도 되고 싶은 걸까. 정글로의 캠핑을 떠나보고 싶단다. "엄마, 아빠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글에 가서 텐트도 치고 축구도 하고 싶어요."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하는 캠핑 영진 씨 가족이 캠핑을 시작한지는 이제 2년 정도.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지방의 명소나 지역축제로 자주 여행을 다니던 시절, 캠핑의 낭만과 경제적인 경비에 반해 입문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숙박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행의 묘미도 살릴 수 있고 경제적인 캠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연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낭만도 있고요." 베테랑 캠핑족들에 비하면 아직 장비가 미약하지만 살릴 놀리듯 조금씩 장비를 갖춰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 다양한 캠핑장비의 정보나 캠핑의 노하우도 공유하며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Tip

웅포관광지 캠핑장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5(웅포리 728-2)
이용문의 : 관리사무실 063)859-3846/www.camping.iksan.go.kr
캠핑장 이용요금 : 일반캠핑장
▪ 성수기(7월~8월) 주말 및 공휴일 : 15,000원
▪ 비수기 평일(월~목) : 10,000원
오토캠핑장
▪ 성수기(7월~8월) 주말 및 공휴일: 10,000원
▪ 비수기 평일(월~목) : 5,000원

우리가족 힐링 캠프, <세플러+원>이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원은 사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독자엽서에 캠핑지와 사유를 적어 보내주세요.



아빠가 과일 꺾는 것을 보더니 자신도 잘 할 수 있다며 냅클 빼앗는 민건이. 과도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해 말릴 법도 하지만 오히려 아빠 영진 씨는 더욱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조심스럽게 아들을 지켜본다.



막내 윤건이가 자전거에 오르자 아빠가 달려온다. "형도 빨리와~"하고 이내 형도 부르는 윤건이. 아빠와 형이 뒤에서 밀어주니 자전거 페달이 더 빨리 돌아간다. 자식이 앞으로 나가려 할 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도와주는, 참 보기 좋은 부자의 모습이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보여준 그날의 기억 집 밖에서 하는 캠핑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과의 뜻밖의 만남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영진 씨 가족도 캠핑을 하면서 많은 추억이 쌓였다. 특히 작년 여름 때 일인데, 영진 씨 가족은 3박 4일 동안 여수세계박람회를 여행하고자 텐트 장비를 꾸렸다. 막상 박람회장에 도착하고 보니 텐트를 설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고. 결국 주차장 한편에 자리를 펴려는데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이 곧 비가 올 것 같다며 이동식 컨테이너 안에 텐트를 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절로 마음이 따뜻해 진다는 영진 씨. 아이들에게도 아직은 정이 있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더욱 값진 추억으로 남아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곳을 보여주고, 함께 하고 싶어 시작한 캠핑. 영진 씨는 가족들과 밤하늘을 보고 새벽산책을 하며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남편을 꿈꾼다. 지금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큰 행복을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가족 파이팅을 외친다.

우리 아빠 맞아?

중년의 변신을 위한 헤어스타일링



카리스마 있는 변신, 차승원의 ‘투블럭 컷’

옆머리를 짧게 밀고 윗머리에 볼륨을 주는 투블럭 컷은 이제 배우 차승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멋진 차승원처럼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를 원한다면 투블럭 컷은 어떤가. 윗머리를 조금 길게 커트해 살짝 펴를 해주면 정수리에 머리숱이 적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 염색은 밝은 갈색은 이미지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무게감 있는 느낌을 원한다면 어두운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Styling tip

옆머리를 짧게 밀기 때문에 곱슬거리는 구레나룻이나 뜨는 옆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서 얼굴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시도해볼 만하다.



부드러운 신사의 품격, 조성하의 ‘댄디 컷’

중후하고 신사적인 이미지의 대표 배우 조성하. 세련미와 동시에 부드러운 호감형 이미지를 원한다면 그의 댄디 컷을 따라해보자. 옆머리 부분과 귀 라인을 깔끔하게 정돈해 수트에 어울리는 단정함을 연출하고, 앞머리와 머리 윗부분에 볼륨을 주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Styling tip

댄디 컷은 비교적 스타일링이 쉬워 중년 남성들이 시도하기에 무리가 없다. 또 왁스나 스프레이를 이용한 스타일링에 따라 앞머리를 올려 다양한 이미지를 낼 수도 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던가. 그런데 남자들도 무죄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금은 남자도 꾸미는 시대!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그루밍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년도 예외일 수 없다. 이른바 ‘꽃중년’이 되기 위해 우리 남자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긴 했는데, 막상 뭘부터 해야할지 막막하다. 그렇다면 헤어부터 바꿔보자. 2:8 가르마에 상고머리만 고집하던 중년들이 열 살은 어려워지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한다.



쾌활한 스포티 맨, 김정태의 ‘리젠트 컷’

남자다움과 캐주얼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10년은 어려보이는 리젠트 컷을 추천한다. 배우 김정태가 선보인 헤어스타일은 옆머리는 귀 모양에 맞춰 짧게 자른 뒤 차분하게 눌러 정리하고 윗머리는 왁스를 발라 세워주면 경쾌하고 시원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옆머리가 뜨는 머리라면 다운 펴를 시도해 눌러주면 좋다.

Styling tip

이마가 넓을수록 가리지 말고 시원하게 보이는 것이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중년들의 최대 고민, 탈모의 A to Z

탈모는 왜 생기나?

▶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과 남성호르몬에 의해 발생한다. 두피에 존재하는 5알파 리덕타제라는 활성효소와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과 만나게 되어 독성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탈모의 유전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만나게 되어 모낭의 수축, 모모세포 분열 감소 등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진행되게 되는 것. 그 밖의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의 원인도 있다.

백발은 탈모에 걸리지 않나?

▶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백발이 되고, 머리가 빠진다. 하지만 백발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 세포의 기증저자가 큰 원인이라 알려져 있지만 이는 탈모와는 관련이 없다.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나?

▶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사실이지만 피지분비를 촉진시키고 두피를 두껍게 해 오히려 탈모를 촉진시킨다.

탈모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

▶ 탈모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 특히 검은콩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우며 흰머리를 검게 만들어 준다. 또 호두의 경우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장기적으로 섭취할 시 새치를 줄이고 건강한 모근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 밖의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미네랄, 비타민을 포함해 모발 촉진인자인 요오드 성분이 있어 탈모가 진행된 후에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다.

혹시 나도 탈모? 탈모자가진단법

- 1 10여 개의 머리카락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가볍게 당겨보아 4~5개 이상 빠진다.
- 2 3일 이상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
- 3 예전보다 이마가 더 넓어졌다.
- 4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며 솜털 형태가 되어 빠진다.
- 5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볼륨이 없다.
- 6 두피가 가려우면서 비듬이 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7 두피 피지량이 갑자기 늘었다.
- 8 가족 중 탈모가 있는 사람이 있다.
- 9 생활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10 손, 발이 차며 머리에 열이 많다.

4개 ▶ 이하 탈모로부터 아직은 안전
5~8개 ▶ 탈모 초기증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
9개 이상 ▶ 현재 탈모가 진행되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가족을 향한 아빠의 기타소리

안산공장 생산팀 이태일 사원의 통기타 배우기

안산의 한 기타학원에서는 기타연주가 한창이다. 안산공장 생산팀의 이태일 씨가 기타배우기에 과감히 도전한 것. 기타 줄을 튕기는 손은 자리 잡는데 정신이 없지만 악보를 따라가는 눈빛은 사뭇 진지하다. 추억의 기타를 통해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는 이태일 씨를 따라가 보자.



20년 만에 다시 만난 기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통기타와 베이스를 잠깐 튕겨보곤 20년 만에 다시 기타를 잡았다. 강산이 두 번 바뀌고 나서야 다시금 기타를 잡으려니 여간 쑥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낸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타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이 바쁘다보니 마음처럼 실천은 안 되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 얼른 도전했습니다.”

기타연습도 열심히! 근무도 열심히!

태일 씨는 안산공장의 생산팀에서 근무하는 10년차 베테랑이다. 출근하자마자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기계를 점검하고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간다.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나면 진이 빠질 법도 한데 태일 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기타학원으로 직행하는 모범생이다. 기타연습도 열심히, 근무도 열심히 하는 태일 씨는 기타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하다.

근무를 보고나면 진이 빠질 법도 한데
지친 기색하나 없이 기타학원으로 직행.
기타연습도 열심히, 근무도 열심히 하는
태일 씨는 기타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하다.



기타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
얼른
도전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들려줄 노래

고된 업무에 기타연습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태일 씨는 집에서 지친 내색을 할 수 없다. 바로 지난 달 갓 태어난 막내아들 때문이다.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것은 아빠인 태일 씨의 임무. 그래도 이제 막 대학생이 된 큰 딸과 고등학생인 둘째 딸이 있어 부모의 수고를 덜어주니 든든하다.

그런데 이런 태일 씨에게 체력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보안 관리’. 자신이 기타를 배우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멋지게 연주하려는 계획을 준비 중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 요 며칠 동안 아내에게는 잔업이 남았다고 둘러댔지만 곧 들통이 날 것 같다며 멋쩍게 웃어 보이는 태일 씨다.

태일 씨가 맹연습중인 곡은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꼭 들려주고픈 노래다. 그저 노랫말처럼 같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추억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늙어가길 바란다는 태일 씨. 그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한다.

당신의 도전, <세플러+원>이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원은 사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독자엽서에 취미 활동과 사유를 적어 보내주세요.

고부갈등 해소를 위한 남편의 자세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며느리들은 '시월드 증후군'에 몸살을 앓기도 하고 '시'자 들어간 음식이나 단어만 봐도 피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고부갈등에 골머리를 앓은 많은 며느리들이 상담소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나 이에 반해 남편들은 아직도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 평온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 부부는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별거기간을 가졌으나 자녀들 때문에 다시 잘해보겠다고 재결합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 아내는 부부싸움 후 자신을 두고 어머니 방으로 자러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희망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사이의 은밀한 일까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남편의 처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니인데 상의하는 게 뭐 그리 나쁘냐고 반박하는데...



어머니라는 울타리에 머무는 이유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와 경계선 구기가 어려운 것은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특권적 지위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존재한다. 분리과정은 특별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만의 감정과 주체의를 갖고 자신이 주인이 된 나를 체험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어머니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과 분리된 독립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는 감정의 일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그런 감정적으로도 독립을 이룬 남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분리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특권을 포기해야 하는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들은 힘든 독립과정을 겪게 되고, 중도에 이를 포기하면 곧 '마마보이'로 전락하는 것이다.

마마보이와 효자는 다르다

자신의 삶보다 자식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식에게 희생하는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보호본능이 지나쳐 집착이 강하다. 그러한 어머니는 아들이 독립된 성인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부모에 대한 사랑의 배신행위로 생각하며 '효'를 내세워 자신의 테두리에 묶어 두려는 경향이 짙다. 모든 것을 어머니께 허락받고 행동하는 마마보이의 전형적인 사례들은 어머니 자신이 구축한 아들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욕심과 지나친 애정이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간섭과 개입을 버리지 못하고, 마마보이들은 어머니의 선택에 의해 중대사를 결정하며 이는 결혼 생활을 원활히 해나가는데 있어 장애 요소가 될수 있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부부가 상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해라', '부모의 품에서 떠나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조언하자. 아들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을 며느리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정한 효도란 어머니의 뜻을 모두 다 따르고 수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독립된 자아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어머니가 이해하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 편을 든다

그렇다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남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내편을 드는 것이 현명하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만 부부관계란 한발짝만 돌아서면 남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버텨야 하며, 또 그게 도리인 줄 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부갈등에서 아내만 나무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되지 않는 변호로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한다면 되려 화만 부를 뿐이다.

결국,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되, 아내와 있을 때 진심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도 부부사이에서 한발짝 빼게 되는 것이다.

고부갈등 해결을 위한 똑똑한 남편의 5계명

1. 양쪽의 입장에 대해 해결책을 주기보다 잘 들어주고 이해하라.
2. 서로의 입장이나 말을 함부로 전달하지 마라.
3. 부모의 아들이 아닌 한 남자로서 독립적인 생각을 하라.
4. 가족여행, 외식 등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5. 부모만큼 장인, 장모에게도 효도하며 처가 행사도 신경써라.



NEWS

정보가 살아있네~!! 알아두면 좋은 2013년 달라지는 제도

2013년부터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 제도와 법규도 새로 준비를 마쳤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와 법규 중 주요 사항들을 꼼꼼히 알아두어 스마트한 미래를 설계해보자.



● 열아홉, 이제 어엿한 성인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속화를 고려해 성인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꼼짝마라 성범죄자!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 진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 증명서 발급, 클릭 몇번이면 OK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 스토키도 처벌 대상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키(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압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 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 다시 돌아온 한글날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된 후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23년 만에 10월 9일 다시 공휴일이 된다.

● 5살 우리아이 목소리나게 키우기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 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 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 원을 지원한다.

● 노령연금 받으려면 기다려, 기다려

현행 만 60세의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돼?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구순구개열(언청이) 2차 수술 확대, 간암·위암 치료제,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치료용 한방 침약, 부분틀니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이 확대된다.

● 단기 자동차보험, 무사고면 보험료 할인?

하루부터 1년 미만까지 짧은 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 보험'이 사고 경력이 없으면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 실손의료보험 실속있게 가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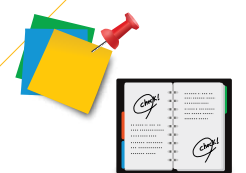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되어 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기부담금 수준이 10%, 20%로 변경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 대부중개수수료 거기서 stop!

6월 12일부터 국민들의 과도한 금리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가 5%(잠정)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 위조는 없다. '전자지급보증서' 도입

기존에 종이로 교부되던 지급보증서의 위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보증서가 도입된다. 전자지급보증서를 통해 은행의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이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시대

올해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기존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 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 무료 와이파이가 활활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에 추가 개방키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천개소에 대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천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은 것이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된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대중 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직불형 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 공제 한도가 추가로 100만 원 늘어난다.

● 여성들 고속도로 휴게소 앞 줄 안서도 돼

정부는 현재 1:1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안전, 내 눈으로 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나 급식·위생 사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 직원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초등학교 전학 간편해도 너~무 간편해

그 동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확인증과 같은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신고확인증 없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설마 우리아이도 집단따돌림을?

지난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개발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 왕따 진단서가 보급된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와 학교가 같이 왕따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학교 급식 위생위반 업체 딱 걸렸어!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 급식 위생위반 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To Communicate

이 한장의 사진

- 창원공장
품질경영사업부
품질보증팀
강보경 사원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세플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취미활동으로 해오던 아마추어 무선(HAM) 동호회 활동에서 우연하게 경비행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비행기에 탑승하였을 때, 기대와 함께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지만 최고 속도 400km, 최고 높이인 8000피트 상공에서 지구 아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놓을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잊지 못해 지금까지 7년 동안 경비행기를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경상남도 함안군의 간이 비행장 활주로에서 시작하여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전국 각지를 왕복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경비행기 취미생활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고 도전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끼고, 일상적인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세플러인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온 세상이 봄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봄날이다.
가족,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봄마중,
꽃구경에 한창인 요즘 꽃구경을
하고 싶은 맘은 모두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든 이가 마음처럼
봄마중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어 멀찍이서
봄을 바라보기만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풀잎마을에 있는 장애인에게도 햇살 가득한
봄날을 안겨주기 위해 창원공장과 연구소의
세플러인들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들의 따뜻한 봄나들이 길을 살포시 따라가보자.



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풀잎마을 사랑 나눔 현장

따스한봄 햇살 맞으며꽃구경기요~

더 소외된 곳에 눈길을 돌리다

경남 창원시 신촌동에 위치한 선린복지재단 풀잎마을은 뇌병변 지체 장애인 보호시설이다. 세플러 창원공장과는 지난 1998년부터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3여 년간 사정상 잠깐 후원을 이어가지 못했던 곳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월 1~2회 목욕봉사와 외출지원봉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풀잎마을은 만 5세부터 5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중증 장애인 8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의 장애인들은 시각 장애인 같은 일반적인 장애인이 아닌 지체가 자유롭지 않은 중증 장애인들로,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직업생활을 하는 장애인도 있으나 이마저도 힘든 25~3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은 시설 내에서 낮시간을 보내야 한다.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어 휠체어 등으로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세플러인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할 주인공들이다.

결코 쉽지 않은 봄나들이 길

이번 봄나들이 자원봉사에는 창원공장과 연구소에서 모인 10여 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모두들 장애인시설 자원 봉사에는 처음 나서서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풀잎마을에 도착해서는 자원봉사 담당자인 박은혜 사회복지사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먼저 받았다. 가장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자세에 관한 부분부터,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휠체어 다루



는 법 등을 전달받았다. 간단한 교육이 끝나고서 곧바로 각자 이번 나들이에 동행하게 될 장애인들을 한명씩 만났다. 각자의 파트너를 만난 자원봉사 참가자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과묵한 경상도 사나이들과 오랜만의 외출에 설레기만한 그들.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과 휠체어 바퀴가 조금은 무거워 보였다.

꽃향기에 취하고 맑은 미소에 젖어들다

이번 나들이 코스는 풀잎마을 인근의 벚꽃 길을 다녀오는 것이다.

풀잎마을 밖으로 어렵사리 길을 나선 10팀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앞으로 이내 환하다 못해 눈부신 벚꽃 길이 펼쳐졌다. 봄 햇살도 적당히 따사롭고 꽃향기도 길 위에 흩날리고 있어서인지 잔뜩 긴장했던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다. 그리고는 교육 받았던 대로 고개를 숙여 눈높이를 맞추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던진다.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나둘 던져 보지만 언어 표현에 불편한 장애인들의 대답을 알아듣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말 대신 환한 미소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충분히 그 뜻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하지만 가는 길목마다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없는 걸림턱은 왜 그리도 많은지, 조그만 경사로를 오르는 것도 왜 그리 힘이든 것인지. 평소 별 생각 없이 걷던 길들이 새삼 다르게 보였다.



편견없이 함께 걸어가기 위한 방법

봄나들이 길은 휠체어로 왕복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였다. 아파트촌 속에 위치한 작은 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풀잎마을 인근의 양곡소공원에서 간단하게 과자와 음료수 등 간식을 먹었다. 금세 친해진 자원봉사자와 장애인들은 서로 간식을 먹여주며 한적한 봄날의 산책을 만끽하고 또 마무리했다. 다시 풀잎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짧은 나들이 동안의 아쉬움으로 걸음을 더디게 옮겼다. 다시 풀잎마을로 돌아와서는 이번 나들이에 발이 되어준 휠체어를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닦아주고 이어 생활시설 내 청소까지 끝마치고서야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금세 친해진 각자의 나들이 파트너들은 서로 몇 번이나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고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

이번 봄나들이 자원봉사야 말로 봄만큼이나 짧은 만남이었지만 봄꽃만큼이나 오래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Interview +one

연구소 제품기술팀 정지원 사원



처음으로 해보는 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이라 재미있겠다는 마음과 어색할 것 같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막상 봉사활동 장소인 풀잎마을에 도착해보니, 역시 첫 대면은 많이 어색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산책을 하면서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둘만의 대화를 나누다보니 마음이 점점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봄날의 꽃길을 걸으면서 적은 시간이나마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이라는 편견도 조금은 덜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ip

풀잎마을 후원안내

직접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 매월 일정액 후원

일반후원 : 비정기 후원

물품후원 : 간식, 생필품, 사무용품 등

후원계좌 : 경남은행 513-07-0036024

국민은행 667-01-0102-153

농협 866-01-195114

우체국 611368-01-002758

(예금주 선린복지재단)

후원문의 :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풀잎마을
055.286.1107,8(www.pulip.org)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젊은 패기로 세플러의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다

서울사무소 구매팀

김택순 사원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기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복무기간 30년쯤 되는 군대에 입대했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구매팀

최종훈 사원

제조업 정통 구매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 직장을 나왔는데,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구매전문가가 되고, 세플러코리아의 높은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간판 사원이 되겠습니다.

창원공장 3PV 선식팀

정병국 과장

앞으로 열심히 실력을 키워나가 '정병국 과장님,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물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공정기술사업부 공정개발팀
송준한 사원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는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며 처음 부서로 배치 받았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을 잊지 않고 항상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공정기술사업부 공정개선팀

이준호 사원

신입사원으로서 무엇이든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 나부터 실천하는 신입사원으로 나아가서는 믿을 수 있는 후배사원, 그리고 모범이 되는 선배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2013년을 맞이하는 서플라이어 데이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22일, 2012년 한 해를 함께 했던 공급업체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2013년 서플라이어 데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진행된 서플라이어 데이 행사에는 50여 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들을 포함한 6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는 우수 협력업체를 시상하는 순서로 시작 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2012년도 우수 협력업체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시상이 끝난 후에 세플러코리아 김재현 대표이사 인사말과 경영 환경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재현 대표이사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협력업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2013년에도 서로 협력하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서플라이어 데이 행사에 참가한 김재현 사장님

▼ 50여 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들을 포함한 6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김재현 대표이사 인사말이 끝난 후 구매팀 파트장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종전의 경우 구매팀이 통합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상세하고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트별로 세분화된 발표를 진행하였다. 업체개발품질파트(최영선 부장)는 품질 정책 및 협력업체 품질 현황에 대하여 전하고, 이어서 직접자재구매파트(안대환 차장)와 일반구매파트(류상봉 과장)에서 직접자재구매 및 일반구매 업무의 2013년도 주요 목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파트장들의 발표가 끝나고 기념 촬영 및 휴식을 취한 뒤, 세플러아시아퍼시픽에서 파견 근무중인 박주일 부장의 AP 구매계획에 대한 설명과 창원 공장의 장봉주 고문의 6속 Burr제거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 모두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행사는 끝이 났다.

2012년 현대기아자동차 CAx경연대회 Pro-E부분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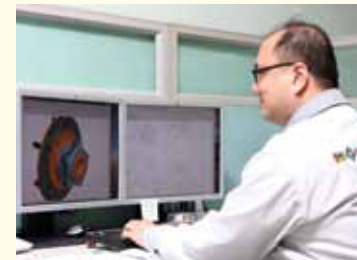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부영 차장

지난 2012년 12월 12일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실시한 'CAx경연대회'에서 창원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부영 차장이 Pro-E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매년 실시하는 'CAx경연대회'는 자동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외부 연구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술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회다.

CAx라 함은 CAD (Computer Aided Design),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등을 말하는데, 이번 대회에서 김부영 차장이 지원한 분야는 CAD 중 Pro/Engineer부분이다.

Interview +one



매년 현대기아자동차 CAx경연대회가 있습니다. 3D CAD는 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해왔는데,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지난 시간에 대한 멋진 발자국을 하나 남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금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제게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CAD 서포터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연구소 최윤석 과장이 1회 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이후 주위의 많은 분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다음 대회에 참석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 늘푸른산악회 도봉산 등반



늘푸른산악회는 지난 3월 16일 서울지점 등산 매니아 4인방, 서울사무소 4인방, 총 8명이 모여서 도봉산 등반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산악회 행사는 도봉산 망월사-포대능선-회룡분기점 코스를 선택했다. 신선대, 자운봉 등의 압벽 봉우리와 큰 바위들, 깊은 계곡을 지나 구비구비 폭포가 있고 그 안에 산사가 어우러진 절경은 가히 설악산 못지 않았으며, 또한 서울과 경기도 경계지점의 도심 및 작은 마을도 매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서울사무소 · RFQ 회의



3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연수원에서 New RFQ Process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은 Schaeffler Tech. 및 Schaeffler Korea의 RFQ 관련 모든 부서원들이 참석하여 새롭게 바뀌는 RFQ Process에 대해 협의하였다.

서울사무소 · IB 워크숍



3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전주연수원에서 IB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당사 영업전략팀과 섹터운영팀 구성원들이 모여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Sales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이번 계기를 통해 영업 활동 추진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사무소 · 축구 동호회 모임



3월 25일, 서울사무소 축구 동호회원 17명이 서울디지털원 운동장에서 모였다. 오전 10시에 가산디지털단지 근처에 위치한 잔디구장에서 만나 2시간 가량 축구 경기를 즐기고,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서울사무소 축구 동호회원들의 2013년 첫 모임을 통해 다함께 봄기운을 가득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안산 · 안산공장 쌍용자동차 우수협력사 선정



안산공장은 지난 3월 25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노력에 매진하여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쌍용자동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되어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다. 세플러코리아를 대표하여 엔진시스템사업부장인 남장현 상무가 대신 참석하여 상패를 전달받았다.



안산 · 2013년 안산위험성 평가 워크숍



지난 2월 20일 시작으로 5일간에 걸쳐 안산공장 전 설비, 유틸리티 및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는 안전·보건에 관련하여 새롭게 강화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이를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MOVE의 지원을 받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워크숍 Kick-off 미팅은 2월 20일 공장장님과 팀장,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범위와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TSTM 코이닝 프레스/열처리 구역, TSTM 연삭~그레이딩 구역, 엔진 연삭 구역, 엔진 조립구역, 사출 구역, Belt & Chain 구역, 유틸리티 구역으로 진단구역을 나누고 각 영역별 진단이 이루어졌다. 안산위험성평가 워크숍에는 환경안전 코디네이터 하준호 차장과 MOVE 트레이너 안효민 차장의 주도 하에, 생산 스텝 및 현장 주임과 반장, 설비보전 인원 등이 참석하여, 실제 안산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보건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안산공장은 점진적인 개선과 더불어 좀더 안전하고 재해없는 공장이 될 전망이다.

안산 · 제19차 세플러안산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제1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지난 2월 1일 교육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2013년 노동조합 예산 집행 및 업무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팀에서 선정된 신입 대의원 소개로 마무리를 하였다.

안산 · 공장장과 함께 간담회 진행



2013년 새해 들어 공장장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업무목표 중에 직원들과 상호 의견 교환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업무개선 간담회 계획을 세워 보는 것으로, 매월 부서별로 일정을 수립한 후, 직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전주 · 제 2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월 4일 내빈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노동조합 25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모범 조합원 표창, 축사, 격려사가 있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산 및 2013년 사업계획, 예산승인, 규약개정 등이 언급되었다.

전주 · 노동조합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실시

3월 20일 노동조합 창립 2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3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강천산(전북 순창소재) 산행을 실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 · 초등학교 입학자녀 기념품 지급

지난 2월 25일 전주공장 직원 자녀 초등학교 입학자녀에게 책가방(르까프)을 지급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자녀는 20명이었으며 새내기 학부모에 대한 관심으로 직장 가정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전주 · 사원자녀 영어교육 개강식



3월 5일 전주시 송천동 소재 에이스어학원에서 2013년 사원 자녀 영어교육 개강식이 있었다. 초등학교 사원 자녀 12명 및 학부모 6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으며 사원자녀 영어교육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하여 직원 가계에 도움을 주고 사원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과 4, 5학년의 2개반으로 분리하여 실시 및 운영하고 있다.

전주 · 사무실 근무자 스트레칭



지난 2월부터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업무 시작되는 13시에 전주공장 사무실 근무자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창자의 구령과 함께 스트레칭 운동을 시작한다. 근무교대 행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칭을 똑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나른하고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 · 근무교대 행사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한 근무교대 행사는 전주공장 공장장(양승욱 상무) 제안에 의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져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근무교대 행사 시간에는 위험예지 지적확인, 스트레칭 실시, 품질구호 제창, 업무 시작 전 인원파악 및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시작한다.

전주 · 깨끗하고 단정한 근무복 착용



지난 2월부터 깨끗하고 단정한 근무복 착용 계몽 운동을 하고 있다. 깨끗하고 단정한 근무복 착용 운동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몽을 위하여 업무지원팀 소속 사원은 어깨띠를 두르고 일일 당번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각 게시판에 표준 및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게시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하였으며 기름이 묻고 심하게 오염된 근무복, 안전화를 구겨 신거나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근무자, 이름표를 패용하지 않는 사원, 작업복을 입지 않는 협력업체 근무자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해당 팀장에게 통보되고 있다.

창원 · 전문직 사원 노동조합 50주년 정기대의원 회의



지난 3월 14일 세플러코리아 노동조합 50주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조합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규약 개정과 임원 보선을 실시하였는데, 4년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었던 규약을 다시 간선제로 규약 개정을 하였으며, 김한수 부위원장에서 이창환 부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되었다.

창원 · 품질 페스티벌 (Quality Festival)



2월 26일, 강당에서 공장장 이하 주임 이상 전 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 페스티벌이 열렸다. 팀별 개선사례의 발표에 앞서 직원들을 위해 발행된 '생산에서의 품질'이라는 유인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고, 신규 사업 분야인 APA 베어링 및 저 토크 테이퍼 베어링에 대한 품질 중점 항목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날 원종우 공장장은 이러한 신규 제품들이 미래의 창원공장의 매출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공정 품질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창원 · 창원시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우승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 간 창원시축구협회장 기 기관·기업체 축구대회가 창원축구센터를 비롯한 6개 구장에서 진행되었다. 그간 성적에 따라 1·2·3부로 나누어 펼쳐진 기업부에서는 세플러코리아 창원공장이 3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생산2팀 송창우 사원이 대회 최우수상(MVP)의 영광을 누렸다. 또한 최다 득점 왕에는 설비보전2팀의 박명식 사원이 선정되었으며, 우수감독상은 생산2팀 전병화 사원이 수상했다.

창원 · MOVE 2nd Wave 워크숍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음력 설 연휴 동안 1PU의 VSD 워크숍 결과에 따라, 라인 직결화를 통한 공정간 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608 연삭 및 조립 라인 직결화 개선을 실시하였다. 창원공장은 연삭 및 조립 공정간의 직결화를 통한 공정재고 감소, RTY 향상 및 리드타임 단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1PU에서는 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라인 직결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2PU에서는 VSD 워크샵 결과인 열처리 공정부터 연삭 공정까지의 FIFO 라인 구축을 위한 파일럿(Pilot) 라인으로 T-27, 28라인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연구소 · 고객 초청 세미나



당사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태원물산 연구소 소속 오창복책임연구원을 초청하여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그린 카 엔진냉각시스템과 워터 펌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당사 제품의 주요 적용 부위인 자동차 엔진 냉각 시스템과 워터 펌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동차부품용 베어링 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연구소 · CAD Special & PDM Link 교육



신규 ProE User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연구소 제품기술팀 최윤석 선임연구원을 사내 강사로 하여 CAD Special & PDM Link 교육이 전주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세플러 그룹 CAD 표준을 이해하고 세플러 그룹 표준 3D CAD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PDM Link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 함으로써 그룹 설계정책에 부합하고 설계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조직활성화 교육 후기

내생각의 작은 변화가 주변을 조금씩 밝힙니다

글 · 전주공장 열처리 생산1팀 객문석 사우 아내 **김미영**

안녕하세요. 저는 세플러코리아 조직활성화 교육에 참석한 객문석 씨의 아내입니다.^^
제가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집에 와서 그날 받은 내용들과 체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교육이 그렇듯이 얼마 안가면 잊혀져서 똑같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듣고 웃어 주었어요. 하지만 이번 교육은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집에 돌아와 기체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평소 유연하고 운동에도 자신이 있었는데 교육을 마치던 날 다리가 다 풀려서 운전하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나 자신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네요. 또 이번 교육은 내 안에 답이 있는 걸 늘 밖에서 찾으려 했던 나를 반성을 하게 했고 조금씩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정말 유익했다면서 저한테 교육을 담당했던 분들 성함을 한 분씩 얘기하면 굉장히 뿌듯해 했습니다.
덕분인지 남편이 요즘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에 한결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 보여서 정말 좋아요. 아이에게도 먼저 손 내밀며 웃어주고 우리 집에 활기를 넣어주네요!! 집에서 그렇고 회사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도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해서 읽어보는 중인데 좋네요. 그리고 기체조는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핫팅~!

글 ·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구자영 사우 자녀 **구본혁**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되는 구본혁입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아빠가 갑자기 게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빠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같이 손을 잡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아빠는 살짝 때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게 때렸어요. 아빠는 꺄꺄꺄 웃으면서 계속 맞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교육에서 이 게임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파 두 개를 두고 양파 하나에는 좋은 말을 들려주고 또 다른 하나에는 나쁜 말만 들려주면 어느 양파가 더 잘 자라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물만 주면 잘 자라지 않냐고 말했죠. 그런데 아빠는 생각을 더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되지 않아서 아빠에게 다시 물었더니 아빠는 좋은 말을 들은 양파가 더 잘 자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는 딱히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앞으로 우리 아들, 딸에게는 좋은 말만 해야겠다. 우리 아들 딸 사랑해”

글 · 창원공장 품질경영사업부 품질보증팀 **이강석** 사우

15기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1박2일 동안 받은 교육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으러 갈 때만해도 ‘교육이 다 그렇지 뭐 별 것 있겠어?’ 그랬지요. ‘유디님’이라는 호칭도 낯 간지럽고 서먹서먹했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꿈같은, 너무나도 짧은 교육일정이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견,시,관 연극 중 윤정희 강사님의 독백이었습니다. 왜 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앞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열심히 살자고 포옹하며 살립니다. 우리 공주님들은 아빠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징그럽다고 하네요.^^
이렇게 좋고, 유익한 교육을 나 혼자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아서 우리 공주님들과 우리 중전도 함께 교육을 받고 싶어 꼭!! 신청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와 함께한 여러 유디님들, 강사님들^^

서울 사무소

2012. 12

엔진시스템개발팀
오근식 | 16일
장인 칠순

2013. 01

남부물류센터
김혜경 | 18일
부친 회갑

남부물류센터
김대만 | 23일
모친 회갑

서울지점
신승희 | 26일
친조모 상

전주물류센터
이재선 | 26일
장모 회갑

남부물류센터
김혜경 | 31일
친조모 상

2013. 02

영업/마케팅팀
심수정 | 11일
모친 회갑

영업/마케팅팀
심수정 | 24일
본인 결혼



심수정

남부물류센터
여태봉 | 24일
자녀 결혼

2013. 03

글로벌CS팀
박은선 | 25일
시부 회갑

BU SCM&PMO파트
안치훈 | 26일
모친 회갑

2013. 04

엔진시스템개발팀
김광진 | 05일
장인 회갑

창원 공장

2012. 12

품질보증팀
강성준 | 21일
모친상

품질보증팀
이석록 | 23일
자녀결혼



이석록

선삭팀
이승열 | 26일
장인상

선삭팀
류재평 | 29일
모친상

2013. 01

공정개발팀
이상욱 | 11일
모친회갑

선삭팀
진봉석 | 19일
모친상

남부물류
김대만 | 23일
모친회갑

설비보전2팀
임우연 | 23일
장인상

단조팀
이현명 | 23일
조모상

2013. 02

생산2팀
양연석 | 06일
모친상

설비보전2팀
이재홍 | 07일
부친회갑

생산2팀
손태호 | 07일
장인상

생산1팀
최영경 | 12일
장인회갑

품질보증팀
한정수 | 12일
모친상

구매팀
정용호 | 17일
조모상

선삭팀
손효섭 | 18일
조모상

생산2팀
정봉준 | 23일
모친회갑

설비보전1팀
김진호 | 23일
장인회갑



김진호

남부물류
여태봉 | 24일
자녀결혼

품질보증팀
홍부길 | 02일
본인결혼



홍부길

열처리팀
이세호 | 02일
조모상

생산2팀
고종석 | 03일
장모회갑

안산 공장

2012. 12

기술연구소
이철희 | 22일
본인결혼

생산팀
유지완 | 22일
본인결혼

생산팀
이미애 | 29일
시모회갑

2013. 01

공무팀
김기홍 | 01일
장인상

생산팀
안철성 | 04일
조부상

생산팀
최희준 | 11일
모친상

생산팀
이태일 | 23일
장인칠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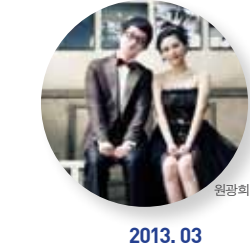
생산팀
이미애 | 10일
시부상

2013. 02

기술연구소
신운섭 | 08일
장모회갑

생산팀
박원영 | 22일
장모상

생산팀
원광희 | 24일
본인결혼



원광희

2013. 03

품질보증팀
최원석 | 05일
장모회갑

기술연구소
김성완 | 25일
모친칠순

전주 공장

2012. 12

생산3팀
김동길 | 18일
장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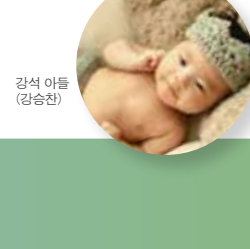
생산2팀
채현석 | 31일
자녀출산



채현석 아들
(채지완)

생산3팀
홍순건 | 15일
조모상

설비보전
강석 | 17일
자녀출산



강석 아들
(강승찬)

생산3팀
양영욱 | 21일
부친상

설비보전
강대식 | 22일
부친상

2013. 03

생산3팀
서병번 | 25일
부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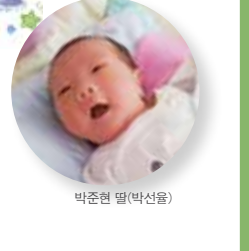
생산3팀
김종식 | 05일
장인상

생산2팀
방성규 | 05일
자녀출산



방성규 아들
(방은석)

품질보증
박준현 | 15일
자녀출산



박준현 딸(박선율)

연구소

2013. 03

제품기술팀
추동균 | 03일
모친회갑

제품기술팀
김동규 | 17일
외조모상

2013. 04

제품기술팀
이창호 | 07일
본인결혼

제품기술팀
이석훈 | 12일
부친회갑



2013년 사보의 개편과 발맞춰
신입 사보 주재기자로 선발된
새로운 얼굴이 독자 여러분에게
힘찬 각오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보다 알차고 발빠르게 전달할
사보 주재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세플러+원〉신입 사보 주재기자를 소개합니다

세플러코리아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창원공장
공정개선팀 조현상 사원

평소에 활동적인 성격으로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 업무 이외에도 사내 축구동호회 같은 곳에서 활동해 오면서 많은 선배님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친분을 적극 활용하여
사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발'이 되어 전 사원들의 이야기를 소중
히 담아내고, 사보를 통해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원공장
품질보증팀 손강우 사원

남들보다 큰 키에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범상치 않은 화술을 가진 사보 주재기자
손강우입니다. 이전까지 나온 사보를 보면서 '사우 인터뷰 때마다 왜 다들 상투적인
말만 할까?'라고 생각 되어 마치 정답이 정해진 것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이 아쉬웠
습니다. 앞으로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인터뷰 내용이 아닌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터뷰
로, 사내 독자들이 읽어서 미소지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원공장
생산관리팀 문성우 사원

입사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인지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선, 후배님들과 아직 서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보 기자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봄에 이렇게 뜻깊은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또다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보 주재기자로 선배님들과 같은 목표
를 이루기 위해 많이 배우고 의견을 공유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님
들께 보다 신선하고, 유익하고, 포근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제가 다가가더라도 도망가지 마세요. 해치지 않으니까요.